

군산 드림스타트 사업 본격화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꿈을 키우는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2024년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010년 정부로부터 신규사업지역으로 선정, 2011년 4월 수송동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한 후 현재는 군산시 27개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분야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는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작년에는 저소득 위기 아동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환경 조성, 성장 단계별 맞춤 특성화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과 지역사회 실천을 독려해 받는 복지에서 나누는 복지로 인식변화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드림스타트는

△예방적·능동적 아동통합사례관리 추진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민관협력 강화 △고난도 사례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전년과 달라진 점은 △드림스타트 필수 서비스 9종 책자 제작 및 사례관리 가정 방문시 필수 서비스 안내 △아동통합사례관리 재사정 회의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례 내실화와 위기아동 사전 개입 △유사 프로그램 통합 및 아동 욕구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추진 △현장 슈퍼비저 확대 배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이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입산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위기아동 등 사례

관리 대상 아동들을 발굴해 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아동 발굴 및 현황조사를 위한 주기적 면담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아동발달 영역별)에 따라 제공하는(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필수서비스(사정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필수서비스 8종(취약아동 건강검진·가정방문 영양교육 등), △맞춤형서비스 36종(클라이밍교실, 마음방역심리지원 등), 기타 시민참여 2종으로 총 4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는 지역자원과 협력체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한(韓)문화 발상지로서 익산이 가진 가치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익산, 한(韓)문화에 빠져들다

시, 문화관광해설사·관광안내원 통한 한(韓)문화 알리기 나서

익산시가 한(韓)문화 발상지로서 익산이 가진 가치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홍보 방안 중 하나로 시민과 관광객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을 통한 한(韓)문화 알리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해설사와 안내원은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 유적 보석박물관 등 지역 관광지를 찾는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 또한 시티투어 동행 해설 서비스도 제공하며 온종일 관광객과 함께하기에 익산의 한(韓)문화 관련 역사성·정통성을 알리기에 최적화해 있다. 익산시는 18일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장을 강사로 초청해 해설사와 안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익산

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익산의 역사적 가치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해설사는 “익산의 한(韓)문화 정통성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교수님과 소통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익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도 익산시의 자랑스러움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익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많이 알리는 관광을 만들겠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해설사와 안내원의 역량 강화에 힘써 관광 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촌지역 청소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박차

익산시, 놀이·활동·취미 등 여가문화 지원... 옛 합열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추진

익산시가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농촌지역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특화공간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옛 합열읍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특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화공간은 학교 돌봄교실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해 다양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편하게 쉬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1층은 사무공간과 보드게임, 콘솔게



임, 실내농구게임, 탁구대, 포켓볼, 코인노래방 등의 놀이와 활동 중심의 특화 공간으로 구성된다. 2층은 북카페, 음악·영화감상실, 동아리실, 상담실 등 건전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스트

레스 해소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소한 청소년 자치공간 다(多)꿈이 많은 청소년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며 “이번에 조성하는 청소년 특화공간 또한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5월 영동동에 청소년 공동체 공간 다(多)꿈을 개소했다. 놀이 문화 학습 등 힘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정책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이 만드는 여행코스 100가지’ 기획 팀 모집

익산시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익산의 매력을 발굴할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18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희망연대와 함께 2024 문화도시 삼삼오오 사업에 참여해 익산 여행코스를 기획할 시민 100팀을 모집한다. 선정된 팀은 다음달 15~27일 팀별 이야기 모임을 시작으로 여행코스 개발에 나선다. 참신한 여행코스를 제안한 20팀 정도를 선정해 실전 여행 프

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여행객의 입장에서 직접 익산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관광객의 취향을 사로잡을 다양한 여행코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 자격은 익산시민 또는 익산에 거주하는 학생·직장인 누구나 가능하며, 3~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선착순으로 100팀을 모집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희망연대

누리집(nly.do&ap)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나 희망연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5), 희망연대(063-841-79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꾸밈없이 여행자부터 자동차 여행자까지 모두를 위한 특색있는 테마형 익산 여행코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봄철 산불 방지 대응 체계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정현을 시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산을 찾는 시민과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있다”며 “바짝 마른 낙엽이 쌓여있는 봄철 산은 작은 불이라도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예방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오래 가꿔온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순간적인 부주의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행정과 시민 모두 한 마음 한뜻이 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빈틈없는 산불 대응 체계를 통해 예방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이 기간 시 산림과 직원 모두가 2인 1조로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또 각 읍면동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2명이 배치돼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함라산과 천호산 시대산 당제산에는 산불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됐고, 산불 취약지 16개소는 산불감시원이 직접 지킨다. 산불방지보호원 40명을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입산 시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관련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불 진화 차량 4대와 기계화 시스템 40대, 전문인력이 상시 대기 중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학생승마체험사업 24일까지 참가자 모집

익산시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 승마 체험을 운영한다. 시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학생승마체험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일반승마 840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가정 등 사회공익승마 37명 등 총 877명으로 지난해보다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청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오는 24일까지 호스파서 신청하면 된다. 일반승마체험 본인 부담금은 9만 6,000원이며, 사회공익승마는 전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승마체험은 대상자 선정 후 4월 초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론수업,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말 타기 등이 진행된다. 안전사고에 대비 승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승마장 5개소에서 모든 학생이 보험 가입 완료 후 체험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군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19억5,347원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접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사 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 가능하며, 만약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이나 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군산시에서 토지 특성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 사항을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